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0.11~2017.10.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자애롭고 맑은 스승 모습에 저절로 下心"



만화 희찬 스님 시봉이야기

원행 스님 지음
에세이스트사 펴냄
2만원

〈만화 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는 상좌인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이 은사 스님의 행장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시도한 내용을 한데 묶은 책이다.

저자는 불교 경전과 염불 소리에 이끌려 약관의 나이에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한암 스님, 탄허 스님,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정진하다가 비구 대처 분규, 불교 종단 분규 등으로 10·27 불교 법난과 월정사 분규 사태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친 수행자이다.

오대산의 큰 선지식인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의 열반 후 49재를 모신 다음, 제2의 출가지라 할 수 있는 가야산 해인사로 가서 성철스님 문하서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맡은 저자는 어느 날 꿈에 탄허 스님의 벼락같은 현몽을 접하고 대전 자광사로 간다. 이후 자광사를 중창불사하고,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겸하며 삼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을 때, 운명처럼 삼화사 원만보신 노사나철불을 친견하고 복원 완료한다. 그리고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경찰불자들을 위해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롭게 장엄하는 등 대중 포교에 힘쓴 저자는 탄허 스님 법어집 출간 날에 구룡사 대웅전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발심해 대웅전 중창 불사를 마치고 월정사 심검당으로 돌아와 수행승의 희비를 회고한다.

저자는 머리말서 "출가를 위해 월정사를 찾았을 때 만화 스님은 지금의 월정사 대웅전 법당을 중창하시느라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인부들과 같이 목도를 메고 나무기둥을 나르는 모습이 흡사 막일꾼처럼 보였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자비불의 현신인 듯 자애롭고 맑은 모습에 저절로 하심하게 됐다"고 첫 만남을 설명했다.

이어 저자는 "은사스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비구 대처 분규, 불교종단 분규, 월정사 분규, 10.27불교법난 등, 한국불교 현대 100년사와 오대산 불교 100년사서 가장 격동의 시간을 온몸으로 겪고 가셨다.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내의 모든 사찰이 국군에 의해 불태워질 때 한암 스님을 시봉하며 상원사를 지켜내셨고, 탄허 스님이 화엄경 역경 불사를 하실 때 잿더미만 남은 월정사의 가난한 살림을 도맡아 위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셨다. 오랜 전통의 한국불교에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지만, 만화 스님처럼 보살 정신과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욕과 헌신으로 족적을 남기신 스님은 많지 않다"고 회고했다.



1975년 월정사 8각9층탑 앞에서 만화스님과 함께.

萬化禪風 일으킨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스님의 인연담, 서간문 등 소개해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선 제 1장 '만화 스님의 출가기' 서 만화 스님의 성장과정과 출가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제 2장 '전설의 도인 한암 회상' 편에서는 만화 스님이 한암 스님을 시봉한 과정을 세세히 소개한다. 제3장 '파란만장한 오대산의 역사' 와 제 4장 '암흑 속에서 옥을 캐다' 에서는 월정사 100년 역사와 그 뒤안길에서 일어난 어려움도 피력했다. 제 5장 '월정사 적광전 신축 대불사' 는 중창 불사를 통한 월정사의 변화 과정을 조명했고, 제 6장 '먹구름이 달을 가리다' 에서는 탄허 스님과 만화 스님의 열반과 그 이후 이야기를 담았다. 제 7~10장은 원행스님과 만화스님의 인연을 비롯해 만화스님의 친필 서간문, 친필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서 이름 없이 산화된 이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불교계에서도 헌신적인 희생과 인욕을 구도로 삼던 만화 스님 같은 분들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존재가치의 평등성 회복이 화엄세계인바, 진즉 그랬어야 했다. 진정한 선은 행선이다. 만화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일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실천적 선구자로서 만화선풍(萬化禪風)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중국 불성사상의 기원은 어떠했을까?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지음
법지 편역
운주사 펴냄
3만 3천원

중국불교의 대표적 특징인 중국 불성사상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과정, 사상체계를 방대한 원전에 입각해 연구, 중국 불성사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심도 있게 조명한 현대 중국불교계의 기념비적 역작으로 평가된다.

불성론이란 '모든 생명에게는 부처의 성품(佛性)이 있어, 그 불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불교의 핵심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불성론은 카스트제도가 엄존한 인도서 모든 존재의 평등을 드러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하지만 불성론이 불교사 안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이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구되기 시작했다. 이후 불성론은 중국불교의 모든 종파와 사상에서 기본적인 바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들을 꽃피워 중국불교만의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이 책은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불성론의 출현으로 시작해, 중국 불성론의 특징과 중국불교에서의 위치와 작용 등을 심도 있게 논술했다. 중국불교학계의 거장이자 세계적인 불교학자 라이용하이(賴永海) 교수의 저서로, 중국의 불교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국불교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다. 또한 학술서로는 드물게 중국에서만도 재발행을 거듭하며 6만 부 이상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현대 중국철학의 대가로 존중받는 장대년은 "중국 불성론은 중국불학 가운데 불성에 관한 학설을 천명했고, 그 원류와 연변을 상세히 논증했으며, 참고한 자료가 광범위하고 분석이 주도면밀하며, 독창적인 면이 많아 창조성을 갖추고 있다. 중국불교사에 있어 이와 같은, 하나의 전문문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보기 드물다"고 극찬했다. 중국불교협회 설립에 참여한 저명 불교학자인 곽붕도 "이 책은 아주 풍부한 일차적 원전자료의 기초 위에서 독립적인 사고와 깊은 탐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통용되는 학설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따르지도 않았다. 이런 다방면에 걸친 창조적인 안목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고 평였다. 또한 대만의 유명한 서양 철학자이자 불교학자이기도 한 부위훈 역시 "이 책은 …… 그 논증이 세밀할 뿐 아니라 수준 높고 엄격한 학술 논저이다. 불교경론을 넓게 인용하여 설명하고 논증하였으며, 토론의 순서는 논리성이 있고, 문장 또한 아주 시원하면서 뜻을 잘 나타내고 있어 최상의 책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 책이 지닌 학술적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중국불교 전개 과정서 '불성론' 의 작용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중국불교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를 '종파불교' 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파' 가 바로 '불성론' 에 입각하여 형성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불성론' 이 지니는 사상사적인 역할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서론을 제외하고 전체 9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돼 불성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사상사적인 입장서 방대한 원문을 인용하면서 논술한다. 중국불교 초기의 '본무설' 로부터 '법성론' , 그리고 '본유설' 과 '시유설' , 그 과정서 제시된 '돈오론' , 나아가 천태의 '성구설' 과 화엄의 '성기설' 등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논증한 점만으로도 본서가 지니는 가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선사상 발전에 있어서 '유정유성' 과 '무정유성' 의 불성론에 입각해 논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中 불성사상 전체 모습 심도 있게 조명
불성론 특징과 위치와 작용 등 논술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제시라고 하겠다. 또한 선종에서는 천태의 '성구설' 과 화엄의 '성기설' 로 종합된 양대 불성론의 입장을 지양하고 제 3의 입장, 즉 명심견성, 즉심즉불이라는 새로운 불성론의 기치를 세웠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돈오에 입각한 조사선이 전개됐음을 밝힌다. 더불어 선종의 발전과정서, 특히 우두선서 '무정유성' 의 불성론에 입각한 선사상이 제시됐으며, 이것이 서서히 중국선의 본류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후기 조사선에서는 이른바 불성의 물성화를 이루어 불성을 간시궐 등으로 표현하며, 가불매조의 선풍이 전개됨을 논한다. 이러한 통찰은 연구의 참신성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저자는 또한 유심정토와 서방정토, 난행도와 이행도 등을 불성론의 관점으로 논하고 있어, 가히 중국불교사 전체에 나타나는, 불성론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제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중국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중국 불성론' 을 방대한 원전 사료에 입각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서이다.

김주일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